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6.1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EU, 회원국간 '디지털 테러정보 공유 강화' 방안 승인

- 6.9 EU 이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테러·범죄 관련자 정보를 모든 회원국이 초기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테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'디지털 테러정보 공유 강화' 방안을 승인
 - * '15년 파리테러 이후 EU내 테러정보 공유 강화에도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공유하지 않고 있어 모든 회원국에 사건 인지 즉시 관련정보를 공유토록 의무화

○ 이스라엘 검찰, 팔레스타인인 2명 테러혐의 기소

- 6.9 이스라엘 검찰은 5.5 중부에 위치한 엘라드市 한 공원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흉기(칼·도끼) 공격을 가해 3명을 살해하고 수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팔레스타인 남성 2명(20세·19세)을 기소
 - * 검찰은 기소장에서 살인 혐의 3건, 테러미수 혐의 5건, 불법입국 혐의 등 적시

미주

○ 美 경찰, '성 소수자 공격' 모의 극우단체 회원 기소

- 6.11 美 경찰은 아이다호州에서 성소수자 축제장 습격을 모의한 백인우월주의 극우단체 '패트리엇 프론트'(Patriot Front)* 소속 회원 31명을 체포하고 폭동 음모 등 혐의로 기소
 - * '17년 극우단체 '뱅크드 아메리카'로부터 분리된 텍사스州 기반의 극우단체

○ 캐나다 법원, 여성중요 '차량돌진 테러범' 종신형 선고

- 6.13 캐나다 토론토 고등법원은 '18.4.23 여성에 대한 중요를 이유로 승합차를 돌진해 韓 유학생 등 11명을 숨지게 한 인셀*(Incel) 「알렉 미나시안」(29세, 男)에게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 선고
 - * '비자발적 독신주의자'(Involuntary Celibate)의 줄임말로, 범인은 인셀들이 이용하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 표출

아 · 태평양

- 호주 법원, 'ISIS 지원자' 모집 여성 징역형 선고
 - 6.10 濠 빅토리아州 법원은 '16년 온라인에서 만난 美 10대 청소년에게 시리아 ISIS에 합류토록 부추기는 등 테러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아프간 이민자 출신 여성 「하다샤 칸」(24세)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
 - * 同人은 10세 때 학교를 그만둔 후 온라인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되어 同 사상 선전 및 테러전투원 합류 격려 등 테러조직 지원
- 탈레반, 모스크·송전탑 테러 배후 ISIS-K 사령관 사살
 - 6.13 탈레반은 12일 아프간 수도 카불 바그라미 지역에서 특수부대 대테러작전을 전개, 최근 아프간에서 수차례 테러를 일으킨 ISIS 호라산지부 고위 사령관 「유수프」를 사살했다고 발표
 - * ISIS-K는 탈레반 再집권 후 '21.8월 카불공항 테러(180여명 사망), '21.10월 쿤두즈·칸다하르 시아파 모스크 테러(100여명 사망) 등 연쇄 자폭테러 감행

중 동

- 후티 叛軍, 정전협정 무시하고 예멘 정부군 공격
 - 6.13 예멘정부는 후티 叛軍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대포와 로켓, 무인기를 이용, 정부軍 점령지역에 대하여 약 72시간 동안 185건의 공격행위를 자행해 군인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무장괴한 피랍 열차승객 11명 석방 발표
 - 6.13 나이지리아 교통부장은 3.28 아부자·카두나 노선의 열차에서 무장괴한에게 납치되었던 승객 65명 중 11명이 풀려났으며, 남은 피랍자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
 - * 同 장관은 승객들의 석방 장소와 몸값 지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미언급

美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테러

- '16.6.12 새벽 2시경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市的 게이(남성 동성애자) 나이트클럽 'Pulse'에서 인질극 및 총기난사 테러가 발생해 49명이 사망하고 60여명 부상
 - * 범인 「오바르 마틴」 (30세)은 '86.11월 뉴욕에서 출생한 아프간계 무슬림으로, 테러 사건 당시 클럽안에서 약 3시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
- FBI는 '13년에 범인을 '잠재적 테러리스트 관찰 대상'으로서 10개월간 조사하였으나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안을 종결한 바 있다고 밝히고, 同 사건은 '자생적 테러'로 판단된다고 발표
 - * 同인이 ISIS에 충성을 맹세했으나, 테러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인
- 同 사건은 '17.10월 라스베이거스 총격테러(60명 사망) 전까지 미국내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
 - * 범인의 妻 「누르 살만」 은 △ 남편의 실탄 구입 및 나이트클럽 사전 답사시 동행 등 지원 △ FBI에 거짓 진술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, '18.3월 배심원단이 무죄를 평결

< 미국내 주요 총기난사 사건 >

- (정의) '총기 난사'(mass shooting) 정의에 대해 명확히 통일된 기준 없이 美 의회 조사국(CRS)·美 법무부 연구소(NIJ) 등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"희생자가 4명 이상이고 공공장소·학교 등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총격사건으로, 강도·말다툼·범죄조직간 공격 등 일반적인 범죄상황이 아닌 것"을 의미
- 미국내 주요 총기난사 사건

사건 명	발생 연도 / 지역	사망/부상
1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	2017,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	60명 / 867명
2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	2016, 플로리다주 올랜도	49명 / 60명
3 버지니아공대 총격 사건	2007,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	32명 / 23명
4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	2012, 코네티컷주 뉴튼	27명 / 2명
5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교회 총격 사건	2017,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	26명 / 22명